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

유문숙¹ · 이은숙² · 유미애¹

아주대학교 간호대학¹, 현암고등학교²

= Abstract =

The Relationship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Moon Sook Yoo¹ · Eun Sook Lee² · Mi-Ae You¹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¹
Hyunam High School²*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self-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in 219 boys and 253 girls ages 14 to 19 from a convenience sample of three high schools in Korea.

Results: Adolescent's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was significant positively related to openness in mother and father communic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Furthermor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emotional intelligence, mother-opened communication, sex and number of friend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se variables explained 43.8% of the variance of th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Higher levels of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mber of friend. Girls significantly showed higher score in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openness in mother communication than boy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mproving emotional intelligence has the effect on enhancing adolescents'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Key Words: adolescent,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본 연구는 2011년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유미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전화번호: 031-219-7016, 팩스번호: 031-219-7020

E-mail: dew218@ajou.ac.kr

원고접수: 2012년 4월 3일, 원고채택: 2012년 5월 30일

서 론

인간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일생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만남을 통해 끊임없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 자아 정체감의 위기와 이에 따른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기이자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화가 또래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화로 확대되는 시기로 이러한 대인관계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태도, 기술과 통찰력을 함양하게 된다(Kim, 2009).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며 협동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경험을 익히기 보다는 컴퓨터와 더불어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친구들과 경쟁적 관계만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Park, 2008).

대인관계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타인에게 행위를 하고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가와 관련된 심리적 양식으로 개인의 적응과 성장, 정체성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에는 자기인식 및 타인인식과 함께 타인과의 올바른 의사소통 즉 대인기술이 필요하다(Jeong & Jang, 2009; Lee, 2009). 특히 친밀한 대인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지와 격려는 다양한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기여하며 사회적 기능과 정신적, 심리적 안녕을 위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Park, 2006).

사회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대인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Chung (2011)은 대인관계를 타인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Heller 등(2006)은 부모와 자녀가 원만한 관계를 가질 때 자녀는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루며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영역이라고 하였다. 부모와 청소년의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Hutt et al., 2009).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과 부모가 서로의 요구, 감정과 욕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학업성적, 자아존중감,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긍정적 결과들과 관련이 있다(Corsano et al., 2006; Shresbury et al., 2010; Xiao et al., 2011). 특히 부모가 개방적으로 자녀와 의사소통을 할 때 자

녀의 대인관계 성향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하여 역기능적으로 이루어지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사회부적응 등을 포함한 문제행동이 유발되기도 한다(Ko, 2005).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인격형성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능과 태도를 키우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Kim et al., 2000). 따라서 타인과의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핵가족화의 보편화 경향과 자녀수의 격감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상호이해와 자기이해의 측면에서 정서교육이 중요하다(Jang & Moon, 2006). 정서지능은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사고를 촉진시키는 정서에 접하거나 그 정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정서 및 지적 성장을 증진시키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Yoo & Kim, 2003).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안정적이며 쾌활하고 책임감과 동정심이 강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정서표현을 적절히 하여 자신과 타인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특성이 있다(Jeong & Jang, 2009). 또한, 정서조절 능력은 특히 심리적 부적응이나 대인간 기능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능력으로 충동을 통제하고 건강한 정신을 갖는 것 그리고 행복하고 마음이 편한 정서 상태와 관계가 있다(Kang & Kim, 2006).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청소년일수록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oo & Kim 2003; Jang & Moon, 2006).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 다양한 관점을 취하여 정서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일 등의 정서능력은 청소년 개개인의 문제행동 예방에 있어 중요하기에(Kang & Kim, 2006) 부모 자녀간 의사소

통과 정서지능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와의 관계(Ko, 2005; Park, 2006; Heo, 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 자아분화,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들(Eun, 2001; Choi, 2007; Kim, 2009; Lee & Sunwoo, 2011)이 수행되어 왔다. 정서지능은 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성격 및 문제행동과 대인관계와의 관계를 보는 연구들(Yoo & Kim, 2003; Kang & Kim, 2006; Lee, 2009; Yi et al., 2009; Kim & Lee, 2010)이 수행되었으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서지능과 대인관계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와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3개 고등학교를 임의표출한 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남녀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562명으로 이중 응답을 불충분하게 한 대상을 제외한 자료 분석에 최종 포함된 대상자는 1학년 168명, 2학년 160명, 3학년 144명으로 총 472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Barnes와 Olson (1982)이 개발한 PAC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도구를 Kim (2009)이 수정 보완한 20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개방형 10문항(홀수 문항의 합)과 문제형 10문항(짝수 문항의 합)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가 5점에서 '전혀 아니다'가 1점으로 개방형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개방적임을 의미하며, 문제형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부개방형 의사소통 Cronbach' α 계수 .93, 부문제형 의사소통 Cronbach' α 계수 .80, 모개방형 의사소통 Cronbach' α 계수 .92, 모문제형 의사소통 Cronbach' α 계수 .81이었다.

2)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Moon (1997)이 개발하고 대교교육과 학연구소에서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작한 정서지능 검사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서인식 8문항과 정서 조절 15문항의 총 23문항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85이었다.

3)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Warner (2007)가 개발한 것을 Chung (2011)이 수정 보완한 15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요소로서 타인기질, 의사소통, 관계촉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89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응답의 비밀보장과 설문에 응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 562부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47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Scheffe로 사후검정을 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으며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독립변수의 공차한계가 .36~.94로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범위는 1.06~2.79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으며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96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의수준은 $p=0.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6.6세로 남학생이 46.4%, 여학생이 53.6%를 차지하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56.1%가 대학교 졸업이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54.0%가 고등학교 졸업이었으며 친구관계는 친구수가 많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92.6%를 차지하였다(Table 1).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능력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경우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는 평균 30.62점(표준편차 9.16점)이고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평균 26.74점(표준편차 7.24점),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는 평균 36.26점(표준편차 8.24점)이고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평균 24.64점(표준편차 7.32점)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은 평균 80.71점(표준편차 11.3점)이었으며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55.27점(표준편차 8.7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능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는 Table 3, 4와 같다.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은 친구수가 많거나 보통인 경우 거의 없는 경우보다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F=6.19$, $p=0.002$) 아버지와 문제형 의사소통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2.61$, $p=0.009$) 친구수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72)

Characteristics	Category	Number	Percent
Gender	Boys	219	46.4
	Girls	253	53.6
Grade	First	168	35.6
	Second	160	33.9
	Third	144	30.5
Education of father	Below middle school	25	5.3
	High school	182	38.6
	Above college	265	56.1
Education of mother	Below middle school	28	6.0
	High school	255	54.0
	Above college	189	40.0
Number of friend	Large	236	50.0
	Moderate	201	42.6
	Few	35	7.4

Table 2. Level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472)

Variables	Mean	SD	Minimum	Maximum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ther–opened	30.62	9.16	10	50
–problematic	26.74	7.24	10	50
Mother–opened	36.26	8.24	10	50
–problematic	24.64	7.32	10	49
Emotional intelligence	80.71	11.13	39	114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55.27	8.74	30	75

적은 경우가 많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9.58$, $p<0.001$).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3.62$, $p<0.001$)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t=3.90$, $p<0.001$), 친구가 적은 학생이 많거나 보통인 학생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85$, $p=0.003$). 정서지능은 친구수가 많은 학생이 보통이나 적은 학생보다, 친구수가 보통인 학생이 적은 학생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F=10.47$, $p<0.001$) 대인관계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3.09$, $p=0.002$) 친구수가 많은 학생이 보통이나 적은 학생보다, 친구수가 보통인 학생이 적은 학

생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0.93$, $p<0.001$).

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 능력간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정서지능은 부문제형 의사소통과 모 문제형 의사소통과 음의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은 부개방형 의사소통과 모개방형 의사소통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72)

Characteristics	Category	Father-opened		Father-problematic		Mother-opened		Mother-problematic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Boys	30.78±9.09	0.35	27.67±7.23	2.61	34.79±7.72	-3.62	26.04±7.00	3.90
	Girls	30.49±9.24	(0.730)	25.93±7.17	(0.009)	37.51±8.48	(<0.001)	23.44±7.38	(<0.001)
Grade	First	30.36±8.77	0.11	27.31±7.11	0.85	35.59±8.14	1.08	25.74±7.54	3.05
	Second	30.78±9.31	(0.900)	26.32±7.35	(0.430)	36.30±8.40	(0.341)	24.23±7.27	(0.048)
	Third	30.76±9.50		26.54±7.29		36.97±8.19		23.83±7.00	
Education of father	Below middle school	29.52±8.11	1.42	26.28±5.25	0.07	35.60±6.32	1.27	23.32±5.74	0.60
	High school	29.87±8.84	(0.242)	26.85±7.59	(0.928)	35.56±8.43	(0.282)	24.96±7.33	(0.552)
	Above college	31.25±9.45		26.70±7.18		36.79±8.26		24.55±7.44	
Education of mother	Below middle school	29.79±8.22	1.74	26.43±6.66	0.53	36.19±7.72	0.02	23.71±7.01	0.26
	High school	30.01±8.95	(0.178)	27.06±7.50	(0.586)	36.20±8.05	(0.985)	24.76±7.42	(0.774)
	Above college	31.58±9.54		26.36±6.98		36.33±8.62		24.63±7.25	
Number of friend	Large ^a	31.58±8.95	6.19	26.81±7.21	9.58	36.83±8.15	2.58	24.55±7.03	5.85
	Moderate ^b	30.32±8.95	(0.002)	25.83±6.82	(<0.001)	36.05±7.86	(0.077)	24.07±7.09	(0.003)
	Few ^c	25.90±10.39	a,b>c	31.53±8.11	a,b<c	33.52±10.45		28.59±9.31	a,b<c

Table 4.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72)

Characteristics	Category	Emotional intelligenc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Boys	79.93±11.13	-1.41	53.95±9.14	-3.09
	Girls	81.38±11.10	(0.160)	56.42±8.23	(0.002)
Grade	First	80.05±10.69	2.89	56.15±8.59	1.34
	Second	79.74±11.79	(0.056)	54.69±8.91	(0.262)
	Third	82.55±10.72		54.90±8.71	
Education of father	Below middle school	78.11±9.15	1.03	54.12±8.20	1.18
	High school	80.36±11.42	(0.360)	54.65±8.03	(0.310)
	Above college	81.19±11.08		55.81±9.24	
Education of mother	Below middle school	77.71±10.08	1.08	53.86±7.07	0.45
	High school	80.87±11.25	(0.341)	55.24±8.37	(0.638)
	Above college	80.93±11.09		55.53±9.45	
Number of friend	Large ^a	82.60±11.39	10.47	56.71±8.62	10.93
	Moderate ^b	79.59±9.69	(<0.001)	54.52±7.85	(<0.001)
	Few ^c	74.38±13.85	a>b,c b>c	49.93±11.61	a>b,c b>c

5.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인관계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친구수와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

형과 정서지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수($\beta=0.09$, $p=0.015$), 성별($\beta=0.10$, $p=0.008$), 모개방형 의사소통($\beta=0.19$, $p=<0.001$)과 정서지능($\beta=0.58$, $p=<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이 4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1	2	3	4	5	6
	r(p)	r(p)	r(p)	r(p)	r(p)	r (p)
Parent-child communication						
1. Father-opened	1					
2. Father-problematic	-.61 (<0.001)	1				
3. Mother-opened	.42 (<0.001)	-.33 (<0.001)	1			
4. Mother-problematic	.31 (<0.001)	.57 (<0.001)	-.68 (<0.001)	1		
5. Emotional intelligence	.33 (<0.001)	-.22 (<0.001)	.41 (<0.001)	-.27 (<0.001)	1	
6.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22 (<0.001)	-.13 (0.005)	.38 (<0.001)	-.21 (<0.001)	.64 (<0.001)	1

Table 6. Factors Influenc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36	3.78		1.15	0.250
Number of friend	2.91	1.19	0.09	2.45	0.015
Sex	1.66	0.62	0.10	2.66	0.008
Father-opened communication	-0.01	0.05	-0.01	-0.21	0.834
Father-problematic communication	0.04	0.07	0.03	0.60	0.548
Mother-opened communication	0.21	0.06	0.19	3.53	<0.001
Mother-problematic communication	0.11	0.07	0.09	1.56	0.121
Emotional intelligence	0.45	0.03	0.58	14.81	<0.001
Adj. R^2 = .438, F = 53.38, p < 0.001					

고찰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이 있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대인관계 능력 정도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유형이며 폐쇄적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 의사표현을 주저하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을 의미한다(Choi, 2007).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경우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는 평균 30.6

점,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는 평균 36.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청소년들 2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Heller et al., 2006)에서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 33.8점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 37.9점보다 낮았다. 또한, 336명의 저소득 아프리카계 미국인 부모와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조사한 연구(Xiao et al., 2011)에서의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인 41.4점보다도 많이 낮아 우리나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서구에 비해 개방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부모와 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또래관계나 사회적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이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 대해 더 감정이입이 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한다(Heller et al., 2006; Choi, 2007). 또한, 청

소년이 부모와 만족스러운 대화를 하고 사실과 감정을 속이지 않는 기능적인 상호작용을 나눌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포기과 좌절 없이 적극적인 대처를 보이므로 (Lee & Sunwoo, 2011) 청소년의 긍정적인 적응을 위해 가족 내에서 청소년과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필요로 된다. 의사소통은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상호 호혜적 과정으로 부모와 아동이 의사소통의 개방성의 정도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으며 아동들은 부모와의 갈등과 차이를 강조하고 과장하는 반면에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측면들을 보고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Xiao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의사소통만을 조사하였기에 추후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하는 의사소통도 조사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성별 차이를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고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높았던 결과(Lee & Sunwoo, 2011)를 지지한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Xiao et al., 2011)와 청소년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들(Shek, 2000; Heller et al., 2006; Heo, 2010)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독립적이어야 하며 과묵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부모와 남학생의 의사소통에 있어 보다 온정적이고 개방적이며 기능적인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정서지능은 평균 80.7점이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에 제한적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Lee, 2009)의 78.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정서지능이 나이가 어릴수록 높다고 보고한 결과(Jang & Moon, 2006)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들(Yoo & Kim, 2003; Kim & Lee, 2010)과 일치하였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Harrod & Scheer, 2005; Yi et al., 2009)과는 상반되기에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로 된다.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 다양한 관점을 취하여 정서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일 등의 정서능력은 청소년 개개인의 문제행동 예방에 있어 중요하며 정서지능은 학습된 기술들과 능력들(Smith et al., 2009)이기에 개개인의 정서지능 평가를 통한 개별화된 청소년 정서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수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인기술점수가 높았던 결과(Eun, 2001)와 유사하다. 청소년들에게 대인관계와 정서지능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들로(Lee, 2009) 본 연구에서도 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정서지능이 높은 대학생이 대인관계 점수도 높았던 결과(Yi et al., 2009)와 유사하다.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애착을 잘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청소년이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Lee, 2008).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대화시간을 늘리도록 격려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여학생일수록 친구수가 많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지능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사회적 기술, 협동성, 대인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Schutte et al., 2001; Jeong & Jang, 2009; Yi et al., 2009)과 일치한다. 청소년에 있어 또래는 중요한 존재로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기가치와 대인관계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친구들과의 긍정적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Corsano et al., 2006; Smetana et al., 2006)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가 적으면 청소년들이 무기력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Jou, 2009).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안정적이며 책임감과 동정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감정표현을 적절히 하여 자신과 타인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Jeong & Jang, 2009)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우관계나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지능을 파악하여 자신의 감정을 지각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대인관계 문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서지능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 증진이 가능하다(Jang & Moon, 2006). 그러므로 인간의 상호이해와 자기이해의 측면인 정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대학입학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자아정체감 형성 등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정서지능관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전체 고등학생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점이지만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에 있어 중요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서지능을 조사하고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고등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정서지능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로 됨을 보여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가 서구에 비해 낮았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가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수가 많을수록 대인관계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 능력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인관계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서지능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신 혹은 타인의 감정을 더 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정서지능이 높아지게 되며 대인관계능력도 향상되어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별 대상자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차이를 비교해보는 연구와 연령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종단연구를 수행해 볼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친구의 수만을 조사하였으나 청소년이 성장함에 있어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형제나 친구관계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추후연구와 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Barnes HL, Olson D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2
- Choi IJ.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depre-

- ssion and anxiety. Korean J Clin Psychol 2007; 26(3):611-628
- Chung T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Managers' Life-Long Education Coaching Leadership and Its Member'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2011
- Corsano P, Majorano M, Champretavy L.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xperience of being alone. Adolescence 2006;41(162):341-353
- Eun HG. Adolesc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interpersonal skills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difference among the grades and between the sexes. The Korea J Youth Couns 2001;9:136-157
- Harrod NR, Scheer SD. An exploration of adolescent emotional intelligence in relation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dolescence 2005;40(159):503-512
- Heller SR, Robinson LC, Henry CS, Plunkett SW.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dolescent openness in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empathy. Marriage Fam Rev 2006;40(4):103-122
- Heo NY. The relation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perceived by the adolescent and their interpersonal orientation. J Eval Couns 2010;3(2):59-74
- Hutt RL, Wang QI, Evans GW. Relations of parent-youth interactive exchanges to adolescent socioemotional development, Soc Dev 2009;18(4):785-797
- Jang MS, Moon HJ. Ecological variables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J Korean Home Econom Assoc 2006;44(4):11-21
- Jeong M, Jang AN. The relation between self-concept and personal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a medi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Korea J Couns 2009;10(2):669-681
- Jou YH. Typology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aiwan. Asian J Soc Psychol 2009;12:121-132
- Kang IS, Kim J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dolescents' psychological tenden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blem behavior. J Korea Acad Psychol Type 2006;13:85-105
- Kim JM, Lee YR.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arentifica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J Korean Home Manag Assoc 2010;28(3):13-26
- Kim KY.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ego-resilience and inclin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9
- Kim MG, Sim HS, Chae JH. The disposition analysis of juveniles's interpersonal relations by Jung's psychological tendency. J Korea Acad Psychol Type 2000;7:39-61
- Ko RY.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style, self-esteem and inclin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2005
- Lee BY.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elf efficacy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J Eval Couns 2008;1(1):89-101
- Lee HK.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perceive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ttachment and social-relations disposition :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9
- Lee HS, Sunwoo HJ. Relationship between parent communication styl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J Korean Home Econom Assoc 2011;49(6):109-122
- Lee MJ. Differ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internet addiction tendency in adolescents. J Korea Contents Assoc 2009;9(11):201-211
- Moon YR. High EQ brings Success. Geulirang. 1997
- Park MH.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 feeling of social isolation and the stress cop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2008
- Park YH. The effects of Korean parent-child relationship on th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 focused on Bu-Ja-Yu-Chin-Sung-Jeong, attachment, We-Consciousness, Self-Differenti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6
- Schutte NS, Schuettpelez E, Malouff JM. Emotional intelligence and task performance. Imagination.

- Cogn Personal 2001;20(4):347–354
- Shek DT. Differences between fathers and mothers in the treatment of and relationship with, their teenage children: Perceptions of Chinese adolescents. *Adolescence* 2000;35(137):135–146
- Shrewsbury VA, King LA, Hattersley LA, Howlett SA, Hardy LL, Baur LA. Adolescent–parent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 preferences regarding body weight and weight management: a qualitative study. *Int J Behav Nutr Phys Act* 2010;7(16):1–7
- Smetana JG, Campione–Barr N, Metzger A. Adolescent development in interpersonal and social contexts. *Annu Rev Psychol* 2006;57:255–284
- Smith KB, Profetto–McGrath J, Cummings GG.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Int J Nurs Stud* 2009;46:1624–1636
- Warner J. Networking and relationship building profile. HRD press. MA. 2007
- Xiao Z, Li X, Stanton B. (2011). Perception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within families: It is a matter of perspective. *Psychol Health Med* 2011; 16(1): 53–65.
- Yi SM, Cho KJ, Ghim HR.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Hum Dev* 2009;16(3):131–147
- Yoo KH, Kim KA.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dolescent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 Hum Dev* 2003;10(1):1–20